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 COVID-19 시기에 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중심으로 -

박금숙¹ · 김지애² · 김혁준³

¹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²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³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The Effect of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Focused on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um during the COVID-19-

Keum Sook, Park¹ · Ji Ae, Kim² · Hyuk Joon, Kim³

¹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Lecturer

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n self 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um during the COVID-19. **Methods :**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35 third-grade students at a nursing university located in I City, J Province. The study period was from August 24 to December 18, 2020. The research was analyzed with the SPSS win 26.0 program. Resilience, interpersonal ability, and self-leadership were calculated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 among variables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self-leadership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The score of the nursing students' were as follows. Resilience 3.48,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3.85, and self leadership 3.69.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 leadership. Factors affecting self leadership are interpersonal relationship($B = 0.43$), and resilience($B = 0.42$), and they explained 60% of variables. **Conclusions :** Students have to improve the self leadership during their school days through education programs. And It's necessary to develop a syllabus included individual and team activity for cultivating self 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adership, Nursing, Education

I. 서론

1. 연구 필요성

최근의 간호현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COVID-19 문제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전체적인 인식의 틀을 개선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당면해 있다[1]. 또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융복합적 간호서비스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팀 교육프로그램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변화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간호교육은 형식적인 간호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2]. 이러한 역량을 셀프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 간호사가 되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간호대학생들 역시 함양해야 할 주요한 자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미래의 간호전문가로서 접하게 될 임상실무 현장의 다양한 대상자와 상황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효과적 대처를 통해 업무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조직의 성과와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3]. 이러한 셀프리더십의 개발은 스스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능동성, 자율성, 창의성을 기반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의 과정으로 간호학생이 학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4]. 최근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높았을 때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이 높으며[2,5] 임상실습 만족도와 수행능력도 높고[6], 학습 몰입효과와 긍정심리[7]와 관련성이 있어, 간호교육의 성과기반 체계에도 반영되고 있다[3].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회복탄력성은 강도 높은 이론교육으로 인한 학업요구와 더불어 임상실습을 통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을 함의한 개념으로[8], 중요하며, 교육 및 훈련을 통해 향상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되어 학

계에서도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9]. 또한 회복탄력성으로 인한 효과적인 성공 대처의 경험은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능력과 안녕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미래의 간호전문인으로서의 진로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8,9].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간호현장에서 두드러진 최근 COVID-19로 인한 실습교육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간호대학생이 성공적으로 대처하는지를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인관계능력은 학업 및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으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여러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상호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실습을 진행하는 임상 현장에서도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실습현장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0]. 또한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는 간호대학생 때보다도 더 많은 대인관계 갈등이 다발하는 상황이 예측됨과 동시에, COVID-19로 인한 방역지침이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간호학 실습을 수행하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 정도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10].

특히 간호대학에서의 실습교육은 다양한 임상현장과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의 간호사로서 필요 역량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병원중심의 임상간호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성기 질환 치료 현장과 함께 지역사회분야에서는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데 요구되는 효과적 간호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분야로 좀 더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역량을 발휘하도록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11]. 그러한 이유로, 간호대학생의 실습운영은 실습이전에 습득한 간호관련 이론을 기반으로 간호학생들 스스로 지역사회 및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일차적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 간호를 기획하고 중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팀 중심의 체계적 문제해결과정 학습 과정이 요구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는 쏟아지는 방역지침과 백신접종 등의 가이드라인의 혼재 속에서 임상간호현장의 많은 변화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12], 간호대학생의 팀 중심의 체계적인 문제해결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조직 내부 및 외부적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협조적 관계로 이끌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적응하고 빠르게 회복하며,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신적 저항력을 향상시켜, 역경을 딛고 다시 튀어 오르는 회복탄력성, 협력적 리더십의 원천이 되는 셀프리더십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서 간호사로서의 꿈을 키우는 간호대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OVID-19로 변화된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대면수업에서의 학습의 만족도에 영향요인[13], 학업소진의 영향요인[14],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15], 학습몰입에 영향요인[16]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으나 비대면 수업이 대면수업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에 유리하여 간호대학생의 높은 학습동기와 집중력을 형성하는 장점이 크고 다양한 학습재구성에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6]. 따라서 비대면 수업관련 연구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고, 향후 도래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에 필수적 요인인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연구가 미흡함을 보완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보건의료적 상황에서 성장해야 할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 실습교육에서의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건의료적 변화에 대응하여 간호교육에서 성취해야 하는 목표 달성과 개인 및 팀 학습 시 셀프리더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간호교육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두 학기동안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 능력 및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습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 셀프리더십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시기에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I시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에서 2020년 1년 동안 COVID-19 시기에 실습을 경험한 학생 3학년 학생 중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35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적정 표본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05$, 효과크기 $f=.15$, 검정력 $(1-\beta)=.90$, 예측변수를 6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123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는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Reivich와 Shattéa[17]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사용하였으며,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Bae[18] 등이 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측정을 목적으로 총 27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Bae[18]등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2)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chlein 등[19]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Chun[20]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부요인으로 만족감,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un[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3) 셀프리더십

간호학생의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24]가 개발한 RSLQ (Revised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 등[20]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은 총 3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는 행동중심적 전략 [behavior-focused strategies]과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건설적 사고전략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연적 보상전략[natural reward strategies]의 3가지 요인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Shin 등[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6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20년 8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I 시에 소재한 1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3학년 2학기를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자발적인 참여를 동의한 학생에게 구글 설문지 주소를 150명에게 발송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였다. 발송한 설문지 중 135부의 자료가 회수되어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 셀프리더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 셀프리더십의 차이는 t-test와 ANOVA,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 셀프 리더십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시작 당시 학교 IRB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학과자체에서 운영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 절차나 참여에 대한 동의를 위해 온라인 설문지 첫 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

하는 경우 ‘참여’에 클릭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연구 종료 후 모든 자료는 폐기할 것이며, 외부로 누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연구결과가 학회지에 출판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도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불이익은 없음을 알려주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이었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 성별은 여자가 111명(82.2%)이었고, 연령은 20대가 115명(85.2%), 30대 이상이 20명(14.8%)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55명(40.7%)이었고,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86명(63.7%)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 98명(72.6%), 보통 33명(24.4%), 불건강 4명(3.0%)이었고, 대학 만족도는 만족이 65명(48.1%)이었으며,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89명(65.9%)이었다. 실습관련 특성으로는 코로나 상황속에서 대면실습과 비대면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여, 2주간(10일)의 실습기간 중 대면 실습 일수가 5일 이하는 65명(48.1%), 6일 이상은 70명(51.9%)이었고, 지역사회 실습 만족도는 만족 110명(81.5%), 보통 25명(18.5%)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24	17.8	
	Female	111	82.2	
Age	under 29	115	85.2	26.24±6.50
	over 30	20	14.8	
Religion	Yes	55	40.7	
	No	80	59.3	
Live with parent	Yes	86	63.7	
	No	49	36.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98	72.6	
	average	33	24.4	
	unhealthy	4	3.0	
University Satisfaction	Satisfaction	65	48.1	
	Common	64	47.4	
	Dissatisfaction	6	4.4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89	65.9	
	Common	41	30.4	
	Dissatisfaction	5	3.7	
Clinical practice days	under 5 days	65	48.1	
	over 6 days	70	51.9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10	81.5	
	Common	25	18.5	

2.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 셀프리더십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평균 3.48 ± 0.39 점 (5점 만점)이었고, 대인관계 능력은 평균 3.85 ± 0.60 점(5점 만점), 셀프리더십은 평균 3.69 ± 0.56 점(5점 만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Resilience,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 Leadership (N=135)

Variables	Min	Max	M	SD
Resilience	2.85	5.00	3.48	0.39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2.05	5.00	3.85	0.60
Self Leadership	2.17	5.00	3.69	0.5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 셀프리더십

회복탄력성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한 경우 3.54 ± 0.41 점으로 보통 3.32 ± 0.29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4.88, p=.009$), 대학 만족도가 만족한다고 한 경우 3.60 ± 0.46 점으로 보통 3.38 ± 0.28 점 또는 불만족 3.18 ± 0.17 점보다 높았다($F=11.20, p=.001$). 그리고 전공 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3.57 ± 0.41 점으로 보통 3.33 ± 0.28 점 또는 불만족 3.07 ± 0.13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8.80, p<.001$), 지역사회 실습 만족도는 만족

하는 경우 3.52 ± 0.40 점으로 보통 3.27 ± 0.29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01, p=.003$).

대인관계 능력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한 경우 3.99 ± 0.58 점으로 보통 3.48 ± 0.47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11.17, p<.001$), 대학 만족도가 만족한다고 한 경우 4.14 ± 0.57 점으로 보통 3.62 ± 0.46 점 또는 불만족 3.22 ± 0.60 점보다 높았다($F=20.53, p<.001$). 그리고 전공 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4.05 ± 0.57 점으로 보통 3.52 ± 0.41 점 또는 불만족 3.00 ± 0.55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21.32, p<.001$), 지역사회 실습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 3.94 ± 0.58 점으로 보통 3.48 ± 0.53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67, p<.001$).

셀프리더십은 연령이 20대인 경우 3.72 ± 0.58 점으로 30대 이상 3.52 ± 0.33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2.15, p=.038$),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한 경우

3.77 ± 0.54 점으로 보통 3.44 ± 0.52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4.79, p=.010$), 대학 만족도가 만족한다고 한 경우 3.92 ± 0.54 점으로 보통 3.53 ± 0.47 점 또는 불만족 3.06 ± 0.54 점보다 높았다($F=14.27, p<.001$). 그리고 전공 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3.87 ± 0.51 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 3.41 ± 0.44 점, 불만족 2.81 ± 0.41 점 순으로 높았으며($F=21.02, p<.001$), 지역사회 실습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 3.78 ± 0.53 점으로 보통 3.32 ± 0.51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93, p<.001$)(Table 3).

4.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

회복탄력성은 대인관계 능력($r=.65, p<.001$), 셀프리더십($r=.65,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Table 3. Differences in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 Leadership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elf Leadership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ender	Male	3.55±0.42	0.98(.330)	3.96±0.74	0.96(.341)	3.63±0.76	-0.50(.619)
	Female	3.46±0.39		3.83±0.56		3.71±0.51	
Age	under 29	3.50±0.41	1.81(.073)	3.89±0.59	1.57(.118)	3.72±0.58	2.15(.038)
	over 30	3.33±0.27		3.66±0.62		3.52±0.33	
Religion	Yes	3.45±0.35	-0.69(.489)	3.88±0.54	0.42(.678)	3.67±0.47	-0.36(.723)
	No	3.50±0.42		3.84±0.64		3.71±0.61	
Live with parent	Yes	3.45±0.35	-1.05(.295)	3.84±0.59	-0.43(.665)	3.67±0.49	-0.57(.572)
	No	3.52±0.46		3.88±0.61		3.73±0.66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a	3.54±0.41	4.88(.009) a>b	3.99±0.58	11.17(<.001) a>b	3.77±0.54	4.79(.010) a>b
	average ^b	3.32±0.29		3.48±0.47		3.44±0.52	
	unhealthy ^c	3.27±0.18		3.52±0.67		3.79±0.83	
University Satisfaction	Satisfaction ^a	3.60±0.46	11.2(.001) a>b,c	4.14±0.57	20.53(<.001) a>b,c	3.92±0.54	14.27(<.001) a>b,c
	Common ^b	3.38±0.28		3.62±0.46		3.53±0.47	
	Dissatisfaction ^c	3.18±0.17		3.22±0.60		3.06±0.54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a	3.57±0.41	8.8(<.001) a>b,c	4.05±0.57	21.32(<.001) a>b,c	3.87±0.51	21.02(<.001) a>b>c
	Common ^b	3.33±0.28		3.52±0.41		3.41±0.44	
	Dissatisfaction ^c	3.07±0.13		3.00±0.55		2.81±0.41	
Clinical practice days	under 5 days	3.44±0.37	-1.12(.265)	3.76±0.55	-1.87(.064)	3.63±0.46	-1.34(.182)
	over 6 days	3.51±0.41		3.95±0.63		3.76±0.6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52±0.40	3.01(.003)	3.94±0.58	3.67(<.001)	3.78±0.53	3.93(<.001)
	Common	3.27±0.29		3.48±0.53		3.32±0.51	

대인관계 능력은 셀프리더십($r=.73,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 Leadership (N = 135)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elf Leadership
Resilience	—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65(<.001)	—	
Self Leadership	.65(<.001)	.73(<.001)	—

5.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상자의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대학 만족도, 전공 만족도, 실습 만족도,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을 변수로 포함하여 입력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2.38이므로 종속변수는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며, VIF 지수는 1.12~2.19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B=0.43, p<.001$),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B=0.42, p<.001$) 셀프리더십이 높았다. 셀프리더십에 영향 미치는 변인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에서는 대인관계 능력($\beta=.47$), 회복탄력성($\beta=.29$) 순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총 설명력은 총 60.0%였다(Table 5).

IV. 논의

본 연구는 COVID-19시기에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 셀프리더십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 및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지한 경우,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경우 셀프리더십이 더 높게 나타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대상자가 셀프리더십이 높은 결과를 보인 Lee[8]와 Kim[9]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또한 셀프리더십 점수가 5점 만점에 평균 3.69점을 나타냈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Self 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B	SE	β	t	p	VIF	Adj R ²	F(p)
Constant	0.68	0.33		2.05	.042			
Age	-0.01	0.00	-.09	-1.60	.113	1.12		
Perceived health status(Healthy)*	-0.09	0.08	-.07	-1.13	.260	1.39		
Perceived health status(unhealthy)*	0.35	0.19	.11	1.82	.071	1.18		
University Satisfaction(Satisfaction) [†]	0.01	0.09	.00	0.06	.951	1.98		
University Satisfaction(Dissatisfaction) [†]	-0.17	0.18	-.06	-0.91	.364	1.54	.600	21.11 (<.001)
Satisfaction of major(Satisfaction) [‡]	0.15	0.09	.13	1.58	.117	2.16		
Satisfaction of major(Dissatisfaction) [‡]	-0.14	0.20	-.05	-0.69	.491	1.5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Satisfaction) [§]	0.07	0.09	.05	0.82	.413	1.30		
Resilience	0.42	0.10	.29	4.07	<.001	1.75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0.43	0.08	.47	5.77	<.001	2.19		
Durbin-Watson = 2.38								

*ref : 보통; † ref : 보통; ‡ ref : 보통; § ref : 보통

는데, Lim과 Yeom[1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최근의 온, 오프라인 학습상황에서 측정한 셀프리더십 점수인 3.62점,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4] 3.68점, Lee 등[11]의 3.65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COVID-19 상황에서 두 학기를 경험하고 3학년 2학기를 마친 간호대학생인 것을 고려할 때, COVID-19 이전의 간호대학생 대상의 Shin과 Chun[23]의 연구의 3.44점과 Lee[8]의 3.41점 보다는 본 연구결과가 현저히 높은 결과였다. 이처럼 셀프리더십이 높게 측정된 이유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COVID-19 상황에서 두 학기 동안 임상실습에서 온, 오프라인 학습을 경험하면서, 과제해결을 위한 팀 활동 또는 개별적인 활동이 대면보다는 비대면 활동수업에서 늘면서, 스스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본인의 학습시간에 맞추어 자신을 이끌어 온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에 대한 교육에서 학생이 자율성을 갖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셀프리더십은 대인관계 능력($r = .73, p < .001$), 회복탄력성($r = .65, p < .0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선행연구인 Lee[9], Rye와 Cho[32]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B = 0.44, p < .001$),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B = 0.42, p < .001$)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 셀프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능력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을 조사한 Kim 등[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이는 임상이나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은 협업과제를 통해 본인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른 동료의 정서를 이해하는 등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상호작용적 정서 요인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24] 궁극적으로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요인

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지한 경우,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경우 대인관계능력이 높았으며,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도구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Kwon과 Kim[25]의 3.63점,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연구한 Lim과 Lee[10]의 3.36점보다 높았다. 선행연구[10,25]에서 대인관계능력은 건강상태가 건강할수록,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은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한편, 회복탄력성 또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Lee[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진행 시점이 COVID-19상황에서 진행되는 임상실습을 수행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회복탄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이고 역동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과제를 수행해나가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지한 경우,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경우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Shin과 Chun[23], Lee 등[26]의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비교적 높은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대상자가 회복탄력성이 높은 결과와 일부 같은 맥락을 갖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재학중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COVID-19 이전의 Kim 등[27]의 3.07점, Lee[28]의 2.53점 보다는 높은 결과였다. 이는 실습 여건이 일관성 있게 대면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실습현장에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동료들이 COVID-19 밀접접촉자 등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비대면 실습으로 전환하여 실습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은 늘어남에 따라,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면서 대인적 스트레스가

줄고, 휴식시간이 길어졌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향후 COVID-19 등 재난상황에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 연구와 Rye와 Cho[29]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 교육은 힘든 간호현장 상황을 극복하고 간호전문인으로 나아가는 적응능력을 길러주도록 하는 필수적 역량인[9] 회복탄력성을 높여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습환경의 변화에도 역동적이며 긍정적이면서도 다양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셀프리더십을 키우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들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60%이었다. 이에 셀프리더십은 개인마다 자신에게 향한 리더십 발휘에 차이가 있고,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 유지, 발전되므로 [4,8]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개발을 위하여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긍정적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길러주는 교육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 향상과 회복탄력성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OVID-19 이전의 연구, COVID-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대상자에 대한 연구, 그리고 COVID-19가 끝난 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범지구적 COVID-19상황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여러형태의 재난상황에서 간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시기에 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대인관계 능력, 셀프리더십 정

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 및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은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비대면 혼용의 실습경험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결과는 일개 대학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지역별, 연령별로 확대 적용하여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을 접목한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실습 전과 실습 후를 비교하여 실습이 셀프리더십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

1. Oh EG. Perspectives on nursing profession for a post-COVID-19 new normal.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20;32(3):221-222. DOI:<https://doi.org/10.7475/kjan.2020.32.3.221>
2. Park. HJ.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21(2):227-236. DOI:<http://doi.org/10.5977/jkasne.2015.21.2.227>
3. Cho YH, Do EY, Kang KS, Kim YM, KIM YK, Rou FR et al.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the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 education. 2017;28(3)

- :347-356.
DOI:<https://doi.org/10.12799/jkachn.2017.28.3.347>
4. Kim DR, Lim HN, Kim JI.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20;11(3):369-377.
DOI:<https://doi.org/10.15207/JKCS.2020.11.3.369>
5. Kim JH, Park MK. Comparative study on self-leadership, team efficacy, problem solving process and task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response to clinical train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4):482-490.
DOI:<http://doi.org/10.5977/jkasne.2014.20.4.482>
6. Kim H. Self-leadership,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7;8(5):267-281.
DOI:<http://dx.doi.org/10.22143/HSS21.8.5.15>
7. Kim YM.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7):112-122.
DOI:<https://doi.org/10.5762/KAIS.2016.17.7.112>
8. Lee JS.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10):253-260.
DOI:<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53>
9. Ahn EK. The trends of the research on resilience in Korean nursing students-perspectives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9;10(5):397-405.
DOI:<https://doi.org/10.15207/JKCS.2019.10.5.397>
10. Lim EJ, Lee MH. Convergenc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9;17(5): 279-286.
DOI:<https://doi.org/10.14400/JDC.2019.17.5.279>
11. Lee CY, Lee HY, Kim GS, Kang KA. Current status of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um in bachelor program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6;17(1):26-37.
<http://kchn.medicallove.com>.
12. KCDC(2021), COVID-19 Response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s) 10-1 edition
13. Kwon SH, Ryu HS. In COVID-19, a study on the effects of professor and learner inter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participation on learning satisfaction in untact lectur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11):87-97.
DOI:<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1.87>
14. Lee EZ. Affecting factors the academic burnout in nursing students of non face-to-face class in COVID-19 situati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4):1011-1030.
DOI:<http://www.riss.kr/link?id=A107289204>
15. Yoon YS, Park BS, Cho HN. Factors Affecting Clinic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Focusing on Online Clinical Practice students during the COVID-19 Era.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21;5(2):1-10.
DOI:<https://doi.org/10.34089/jkn.2021.5.2.1>
16. Lim SM, Yeom YR.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to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both online and offline lectur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20;10(11):107-116.
DOI:<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11.107>
17. Reivich, K., & Shatté, A.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wayBooks. 2003.
18. Bae HR.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resilience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master's thesis]. Suwon:Kyonggi University; 2012;(13):49-50.
19. Schlein, S., Guerny, B., & Stover, L.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Pennsylvania University. 1971.

20. Chun SG.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the rehabilitation of schizophrenic patients. [dissertation]. Seoul:Soongsil University. 1995, p1-178.
21. J. Houghton & C.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002;17(8):672-691.
DOI:https://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22. Shin YK, Kim MS, Han YS.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9;6(3):313-340.
23. Shin MJ, Chun YE. Convergence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9(2):19-32.
DOI:https://doi.org/10.15207/JKCS.2018.9.2.019
24. Lim MH.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2020;18(3):35-43.
DOI:https://doi.org/10.22678/JIC.2020.18.3.035
25. Kwon YE, Kim SY. Factors influencing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3), 967-981.
DOI:https://doi.org/10.22251/jlcci.2019.19.3.967
26. Lee JS, Kwon RW, Lee YK, Hong GJ. Effect of self-efficacy, resilienc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on subjective happiness.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2020;4(5):63-74.
DOI:https://doi.org/10.37181/JSCS.2020.4.4.063
27. Kim EK, Yu JY, Lee JL.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transitional shock and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of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9;19(20), 319-336.
DOI: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0.319
28. Lee JY. Type D personality and car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master's thesis]. Seoul:CHA University. 2019:1-69.
29. Rye JH, Cho JH. Influencing of Resilience and Innovative organization culture on Self- 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2):525-534.
DOI:https://doi.org/10.21742/AJMAHS.2018.02.79